

걸음마기 영아 어머니의 양육수행 성공여부에 따른 양육행동 귀인과 부모역할 자기인식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ribution and Self-Perception in Parenting Roles to Parenting Success or Failure Situations among Mothers of Toddlers

한세영¹ 이은경²

Han, Sae-Young¹ Lee, Eun Gyoung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ribution and self-perception in parenting roles according to parenting success or failure situations. A total of 138 mothers who have toddlers in Seoul and other big cities in Korea completed questionnaires, and data were analyzed by paired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Fisher's Z score, and multi-regress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in parenting success situations showed higher parental attribution than mothers in parenting failure situations. Second, correlations between parental attribution and self-perception in parenting roles turned out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parenting success situations and failure situations. Third, both internal attribution such as ability and effort, and external attribution such as child behavior and task difficulty, significantly predicted self-perception in parenting roles including equilibrium feeling, competence, satisfaction and parenting investment, especially in parenting failure situations. The implications of the difference in parental attribution between parenting success and failure situations have been discussed.

¹ 제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부교수

² 교신저자

이화사회과학원 연구원
(e-mail: leg6180@gmail.com)

|| **Key words** Parenting Success Situation, Parenting Failure Situation, Parental Attribution, Parenting

I. 서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과 대인관계를 조절해가는 방법을 배운다. 부모의 양육은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이나 대인관계 및 인지발달을 이루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변인이다(Dunn, 1993).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양육역할은 자녀의 긍정적인 전인발달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실제로 부모가 온정적이고 합리적인 긍정적 양육을 할 때 자녀는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고, 문제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보고되는(Steinberg, Elmen, & Mounts, 1989) 반면, 부모가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부정적 양육을 보이면, 자녀의 주도성이 결여되고 부적절한 정서를 나타내고, 반항과 보복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우대식, 1992; Becker, 1964). 이러한 어머니의 부모역할이나 양육행동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양육행동을 다루고, 이들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녀양육을 하는데 있어서 부모들이 자신의 양육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양육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등과 같은 양육인지(parenting cognition)에 대한 연구에 많은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최형성, 정옥분, 2000). 즉, 부모의 양육에 대한 인지적 접근을 통해 양육에 관한 생각이나 신념과 같은 인지적 내용이 부모의 행동을 중재한다는 입장에서 양육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육에 관한 인지적 내용은 양육수행에 대한 부모의 귀인(attribution)과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인식(self-perception of parenting) 등의 변인들로, 이러한 인지적 측면들은 서로 관련이 있다(DeWolff & van IJzendoor, 1997). 먼저, 귀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귀인(attribution)이란 개인과 환경의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행동의 원인을 판단하고 예견하며 추론하는 지각 양상에 관심을 두고 어떠한 현상이나 행동의 원인을 추정하는 과정이다(Rotter, 1954). 즉, 귀인은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반응하여 나타내는 행동은 그 상황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어떻게 추론하는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Weiner(1979)는 귀인 성향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였으며, 귀인을 원인소재 차원(locus causality), 안정성 차원(stability), 통제가능성 차원(controllability)의 세 가지 차원 모델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원인소재 차원은 사람들이 사건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내적 귀인 또는 외부요인의 탓으로 돌리는 외적 귀인을 의미한다. 즉, 능력, 노력 등의 내적 귀인은 자신이 행동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해, 과제 난이도, 운, 아동행동 등의 외적 귀인은 자신과 행동결과 간에 아무 관계가 없고 얻어진 결과는 우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뜻한다. 안정성 차원은 행동의 수행 결과에 대한 원인을 안정 대 불안정의 연속선상에서 분류한 것을 의미하며, 능력이나 과제 난이도 등은 안정된 것임에 반해, 노력이나 운 등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통제가능성 차원은 노력 등의 통제가능한 원인과 능력, 운, 과제난이도 등의 통제 불가능한 원인으로 구별된다.

한편, 귀인이론에 따르면, 성공한 상황에서 그 원인을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찾는 것과 실패한 상황에서 그 원인을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서 찾는 것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다른 결과와 다른 성취동기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즉, 성공을 안정적 원인인 능력에 귀인하고, 실패를 불안정한 원인인 노력에 귀인하는 경우, 더 노력하고 연습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실패 했더라도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의 과제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성취기대가 높다. 반대로, 성공을 노력으로, 실패는 자신의 부족한 능력으로 귀인하는 경우, 실패한 이유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족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여겨 과제를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성공한 상황에 대해서는 능력에 귀인하고, 실패한 상황에 대해서는 노력에 귀인하는 것이 더 적응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귀인은 일상생활에서 예측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을 때, 즉, 성공을 예상했는데 그 결과가 실패이거나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성공적인 성과를 얻었을 때, 왜 그런 예상 밖에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하여 더 궁금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주의를 기울인다. 특히 성공적이라고 확신했는데, 그 결과가 반대인 경우에 그 원인을 규명해보려는 욕구가 한 층 유발된다. 이와 같이 인과분석 행동은 예기치 않은 부정적 결과가 발생했을 때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송경애, 2009).

이러한 귀인이론을 양육 상황에 적용해보면, 양육수행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 어머니가 어떠한 요인으로 귀인하는가는 서로 다른 결과와 인식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양육수행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 어떠한 요인으로 더 많이 귀인하는지도 차이가 나타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수행에 대한 귀인을 살펴본 박수연(2005)의 연구에서는 양육 상황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는 어머니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어머니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두고 있어, 어머니 자신의 내적인 귀인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육수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 간의 점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선행연구는 양육수행 성공과 실패로 구분하기는 했으나 성공여부에 따라 귀인이 다르게 이루어지는지를 측정하지 않고, 성공한 상황에서의 내적귀인과 외적귀인의 차이, 실패한 상황에서의 내적귀인과 외적귀인의 차이를 살펴보아서 양육수행 성공여부에 따른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양육행동 귀인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는(이송은, 2011) 양육수행을 성공적으로 했을 때와 양육수행을 실패했을 때 모두 어머니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원인을 두어 내적귀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양육상황에서 성공했을 때는 자신이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였고, 양육상황에서 실패했을 때에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의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와 같이 양육상황에서 성공했을 경우와 실패했을 경우를 비교하여 측정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소수의 선행연구들이(박수연, 2005; 이송은, 2011)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양육수행 성공과 실패의 두 상황에서 어머니가 양육수행을 어떻게 귀인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이 때 양육의 성공과 실패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귀인이라는 주관적인 인지적 요소를 유발하는 배경상황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양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는 각각 어머니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겨 구분하고자 한다. 귀인행동은 귀인의 주체가 되는 개인이 경험하는 실패와 성공의 원인에 대한 추론을 의미하며(Himelstein, Graham, & Weiner, 1991), 인지이론가들은 사람들이 외부의 사건이나 조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해석에 의해 반응한다고 한다고 하였다(송경애, 2009). 특히 양육행동의 결과는 양육의 성과를 어느 정도로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양육행동의 주체인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의 성과를 성공으로 인지하느냐 실패로 인지하느냐에 따라 다음으로 귀인행동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의 성공과 실패여부는 양육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여 구분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귀인의 하위요인을 능력과 노력으로만 국한된 기존의 양육행동 귀인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양육수행 성공상황과 실패상황에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뿐만 아

나라 과제난이도와 아동의 행동과 같은 외적요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양육에 관한 인지적 내용 중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인식은 자녀를 잘 기르고 가르치며 부모-자녀 사이에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지각이다(Johnston & Mash, 1989). 이는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인식으로, 부모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감을 경험하는지, 부모역할을 얼마나 유능하게 수행하는지, 부모 스스로 자녀에게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지, 그리고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Bornstein & Cote, 2003). 이 중 양육에서의 유능감은 부모의 과업을 완수하고 아동의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지각으로(Scheel & Rieckman, 1998), 국내연구에서는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며, 부모역할을 어렵게 여기지 않고 자녀양육과 연관된 어려움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지각으로 정의하고 있다(안지영, 2001). 즉, 부모로서의 유능감은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부모역할 수행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기대와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다. 양육에서 자신감이나 유능감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는 양육만족감은 물론 효과적인 자녀양육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은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만족감, 행복감, 유능감으로 정의되며(도현심, 김지신, 1997), 이러한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은 일상적인 긴장과 갈등을 낮추어 부모가 지각하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가족체계의 긍정적인 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설명되고 있다(Guidubaldi & Cleminshaw, 1994). 또한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은 합리적, 애정적, 성취지향적, 일관성 있는 규제 등의 긍정적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으로 밝혀졌다(문혁준, 2001). 즉, 양육자로서 자신의 유능하다는 인식과 이러한 인식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양육만족감은 바람직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Teti & Gelfand, 1991), 부모로서의 유능감과 만족감 두 요인은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또한 자기인식의 하위요인 중 부모 역할 외의 다른 역할간의 균형감과 부모역할에 대한 투자는 국외 연구에서(Bornstein et al., 1996)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연구가 많이 되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이 요인들을 포함시켜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인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과 다른 역할 간의 균형감, 어머니로서의 유능감, 부모역할에 대한 투자, 부모역할 만족감의 하위요인을 포함시켜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몇몇 연구들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인식은 앞서 설명한 양육행동에 대한 귀인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양육에 있어서 능력이 있다고 귀인할수록, 부모역할에 만족감을 느끼고, 양육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rnstein et al., 1996; Leung & Shek, 2015). 국내 연구의 경우, 양육행동에 대한 귀인과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인식에 관한 연구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며, 이러한 연구는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보다 주로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박수연, 2005; 이송은, 2011). 어머니의 양육행동 귀인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양육 관련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내적 귀인을 많이 하는 어머니들은 사회적인 양육,

가르치는 양육, 한계 설정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송은, 2011; Azar, Siegel, & Cote, 1993; Bondy & Mash, 1999; Leung & Shek, 2015). 한편, 어머니의 부모역할 자기인식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로서 유능감을 지각할수록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자녀의 능력과 자원을 인정하여 문제 해결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주었다(문혁준, 2001; Mondell & Tyler, 1981). 그리고 부모역할에 만족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동기를 유발하고 많은 관심을 보이며 자녀에 대한 태도가 애정적이었으며(Simons, Beaman, Conger, & Chao, 1993). 또한 부모역할에 대해 시간적, 경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한계설정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송은, 2011). 위의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양육수행을 성공적으로 한 경우, 내적귀인을 많이 할수록, 또 긍정적으로 부모역할에 대해 인식할수록 바람직한 양육행동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통해, 양육의 인지적 요소인 양육행동 귀인과 부모역할 자기인식은 일련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수행 성공여부에 따라 둘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나아가 양육수행 성공여부에 따라 양육행동에 대한 귀인이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양육인지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주로 유아기와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뿐 걸음마기 영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생애초기의 부모의 역할은 다른 시기보다도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부모-자녀관계의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특히, 18개월~36개월 사이에 있는 걸음마기는 높은 활동성을 보이고, 탐색욕구가 높아지며, 자기주장이 강해지는 시기로(Erickson, 1950), 이 시기의 어머니들은 걸음마기 자녀의 독특한 발달특성으로 인해 자녀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보이고 부모로서 낮은 만족감을 갖는다(박성연, 서소정, Bornstein, 2005). 즉, 이 시기의 자녀양육의 중요성은 다른 시기에 비해 더 강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마기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다른 발달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드물게 연구되어 왔기에, 본 연구에서는 걸음마기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양육행동에 대한 귀인과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인식과 같은 양육인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걸음마기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양육수행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양육행동에 대한 귀인의 차이가 나타나지를 살펴보고, 양육수행 성공과 실패에 따라 양육행동에 대한 귀인과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인식 간의 관계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양육수행 성공 여부에 따른 양육행동에 대한 귀인이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양육수행 성공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귀인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양육수행 성공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귀인과 부모역할 자기인식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두 상황의 상관관계 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양육수행 성공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귀인이 부모역할 자기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 138명(남아: 62명, 여아: 7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평균연령은 33.2($SD = 4.47$)세이며, 걸음마기 아동의 평균 연령은 27.6($SD = 5.62$)개월로 나타났다.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의 경제적인 수준은 중상(12.3%)과 중(58.0%)에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60.1%, 56.5%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직업은 은행원, 공무원, 선생님이 29.0%, 전문직이 14.5%, 사무직이 5.8%였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31.2%, 은행원, 공무원, 선생님이 19.6%, 전문직이 8%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의 가정은 대체로 중산층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해서는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수행에 성공여부에 따른 양육행동에 대한 귀인,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인식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어머니의 자기보고로 측정하였다.

1) 양육수행 성공여부에 따른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

양육수행 성공여부에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 문항은 미국 NICHD에서 한국어로 번안한 The Parent Attributions Questionnaire(PAQ; MacPhee, Seybold, & Fritz, n.d.)를 사용하였다(박수연, 2005; 이송은, 2011). PAQ는 옷입히기, 목욕시키기, 달래기, 가르치기, 훈육시키기, 의사소통하기, 놀아주기 등 일곱 가지의 양육 상황을 각각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7문항)와 실패한 경우(7문항)로 나누어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는지 실패했는지 여부는 각각 어머니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겨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각 양육상황에서 어머니가 그 양육행동을 잘 할 수 있는 이유와 잘하지 못하는 이유를 어머니로서의 능력, 과제 난이도, 아동의 행동, 어머니의 노력, 어머니의 기분으로 다섯 가지로 나누어 묻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곱 가지 양육 상황에 대해 어머니의 능력은 '내가 이런 일을 잘(못) 하기 때문이다'로, 과제 난이도는 '이런 일은 쉽기(어렵기) 때문이다'로, 아동의 행동은 '우리 아이가 잘 따라주기(않기) 때문이다'라는 보기가 제시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노력은 '내가 잘 하려고 애썼기(애쓰지 않았기) 때문이다'로, 어머니의 기분은 '내가 기분이 좋기(나쁘기) 때문이다'로 제시되었다. 각 이유문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어머니로서의 능력, 과제난이도, 아동의 행동, 어머니의 노력으로 더 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 상황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문항내적 일치도는 어머니로서의 능력은 $\alpha = .68$, 과제 난이도는 $\alpha = .69$, 아동의 행동 $\alpha = .67$, 어머니의 노력 $\alpha = .73$, 어머니의 기분 $\alpha = .74$ 로 나타났다. 양육 상황을 실패한 경우 문항내적 일치도는 어머니로서의 능력은 $\alpha = .70$, 과제 난이도는 $\alpha = .78$, 아동의 행동 $\alpha = .80$, 어머니의 노력 $\alpha = .84$, 어머니의 기분 $\alpha = .85$ 로 나타났다.

2) 부모역할에 대한 어머니의 자기인식

부모 역할에 대한 어머니의 자기인식은 미국 NICHD(The National Institute of Child and Human Development)에서 한국어로 번안한 MacPhee, Benson, Bullock(1986)의 Self-Perception of the parental Role(SPP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박수연, 2005; 이송은, 2011). 이 척도는 평소 어머니가 자신을 부모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 하위요인에는 부모역할과 다른 역할 간의 균형감, 어머니로서의 유능감, 부모역할에 대한 투자, 부모역할 만족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하위 변인들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SPPR의 4가지 하위요인 중 첫 번째, 부모역할과 다른 역할 간의 균형감을 묻는 문항으로는 ‘어떤 부모들은 자식이 생긴 이후로는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등의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요인인 어머니로서의 유능감을 측정하는 문항에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잘 해주고 있다고 느낀다’ 등의 내용을 포함되었다. 세 번째 요인인 ‘부모역할에 대한 투자’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의 예로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한다’를 들 수 있다. 마지막 요인인 부모역할 만족감의 문항의 예로는 ‘어떤 부모들은 부모가 된 것에 대해 부모가 되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만족한다.’ 등을 들 수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의 점수범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하위요인의 문항내적 일치도는 부모역할과 다른 역할 간의 균형감 $\alpha = .82$, 부모역할에 대한 투자 $\alpha = .70$, 어머니로서의 유능감 $\alpha = .70$, 부모역할 만족감 $\alpha = .77$ 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설문지 배포 및 수거는 2009년 3월 2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 동안 진행되었다. 자료는 서울 및 경기도에 있는 14개의 어린이집과 영유아교육기관을 통해 18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걸음마기 아동을 둔 어머니 152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여 수집되었다. 교사를 통해 어머니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는 선택사항이며 필수가 아니니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였으며, 조사가 2009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서면 동의서는 받지 않았다(회수율 76.0%). 이들 자료 중 일부자료가 미비하거나 누락된 자료들을 제외하고 총 138부의 자료가 연구문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22을 이용하여 자료에 대한 빈도분석과 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표준화된 값(Z)으로 변환하였다. 양육상황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 귀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귀인과 부모 역할에 대한 자기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양육 상황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Lenhard와 Lenhard(2014)¹⁾의 공식에 따라 Fisher의 z 값으로 변환시켜서 상관계수의 차이를 z 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부모 역할에 대한 자기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수행 성공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양육수행 성공 여부에 따른 양육행동 귀인의 차이

연구문제 1인 양육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귀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들에 대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1>과 같이, 양육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실패한 경우보다 어머니의 능력($t = 10.00, p < .001$), 과제 난이도($t = 7.54, p < .001$), 아동의 행동($t = 11.78, p < .001$), 어머니 노력($t = 9.44, p < .001$), 어머니 기분($t = 12.09, p < .001$)으로의 양육귀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양육 수행 성공 여부에 따른 양육행동 귀인 차이 (N=138)

	양육수행 성공		양육수행 실패		paired - t
	M	SD	M	SD	
어머니 능력	3.28	.66	2.31	.71	10.00***
과제 난이도	3.10	.70	2.28	.78	7.54***
아동의 행동	3.57	.63	2.36	.83	11.78***
어머니 노력	3.39	.65	2.50	.91	9.44***
어머니 기분	3.48	.70	2.20	.94	12.09***

*** $p < .001$.

2. 양육수행 성공 여부에 따른 양육행동 귀인과 부모역할 자기 인식의 관계

연구문제 2인 양육 상황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에 따른 양육행동에 대한 귀인과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 인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양육

1) $r' = 0.5 \times \log_e \{ \text{Abs}([1 + r] / [1 - r]) \}$
 $Z = (r_1' - r_2') / \text{sqrt} ([1 / (N_1 - 3)] + 1 / [N_2 - 3])$

상황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표 2>에서 보듯이,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인식의 하위요인인 다른 역할들과의 균형감과 양육행동에 대한 귀인의 하위변인인 어머니의 능력과 과제난이도, 아동행동, 어머니 노력, 어머니 기분은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3 \sim .29, p < .01$). 그 외 부모 역할에 대한 유능감은 오직 어머니가 유능감으로 귀인 하는 것만이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0, p < .05$). 그리고 부모역할에 대한 투자는 과제 난이도($r = -.36, p < .001$)와 아동의 행동으로 귀인 하는 것($r = -.24, p < .01$)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은 어머니의 노력을 제외한 어머니의 능력($r = -.27, p < .01$), 과제 난이도($r = -.34, p < .001$), 아동의 행동($r = -.27, p < .01$), 어머니의 기분($r = -.21, p < .05$)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즉, 양육수행 성공 상황에서는 다른 역할들과의 균형감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양육행동의 귀인을 어머니의 능력, 과제 난이도, 아동행동, 어머니의 노력과 기분으로 많이 귀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한편 유능감을 높게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은 어머니의 노력으로 적게 귀인하는 것만이 관련이 있었다. 부모역할 투자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어머니의 과제 난이도, 아동행동으로 적게 귀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으며, 만족감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어머니의 능력이나 과제난이도, 아동행동으로 적게 귀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다음으로 양육 수행을 실패한 경우, 양육행동에 대한 귀인과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 인식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3>에서 보듯이 다른 역할과의 역할균형감은 어머니의 능력, 과제 난이도, 아동의 행동, 어머니의 노력, 어머니의 기분에 ($r = -.28 \sim -.15, p < .01$) 귀인 하는 것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부모역할에 대한 유능감과 부모역할에 대한 투자,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은 어머니의 능력, 과제 난이도, 아동의 행동, 어머니의 노력, 어머니의 기분에($r = .32 \sim .50, p < .01$) 귀인 하는 것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양육수행 실패 상황에서는 다른 역할들과의 균형감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양육행동의 귀인을 어머니의 능력, 과제 난이도, 어머니의 노력과 기분으로 적게 귀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한편 유능감

<표 2> 양육수행 성공 시 양육행동 귀인과 부모역할 자기인식의 관계 (N=138)

	1	2	3	4	5	6	7	8
1. 어머니능력								
2. 과제난이도	.67***							
3. 아동행동	.55***	.61***						
4. 어머니노력	.38***	.15	.33***					
5. 어머니 기분	.51***	.42***	.41***	.48***				
6. 역할균형감	.23**	.24**	.28**	.29**	.23**			
7. 유능감	-.20*	-.16	-.07	-.06	-.06	-.40***		
8. 부모역할투자	-.15	-.36***	-.23**	.10	-.09	-.26**	.46***	
9. 만족감	-.27**	-.34***	-.27**	-.03	-.21*	-.45***	.54***	.62***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양육수행 실패 시 양육행동 귀인과 부모역할 자기인식의 관계 (N=138)

	1	2	3	4	5	6	7	8
1. 어머니능력								
2. 과제난이도	.78***							
3. 아동행동	.71***	.68***						
4. 어머니노력	.71***	.67***	.81***					
5. 어머니 기분	.70***	.64***	.70***	.69***				
6. 역할균형감	-.28**	-.25**	-.22**	-.15**	-.23**			
7. 유능감	.50***	.37***	.46***	.42***	.44***	-.40***		
8. 부모역할투자	.36***	.41***	.45***	.32***	.42***	-.26**	.46***	
9. 만족감	.44***	.52***	.47***	.35***	.46***	-.45***	.54***	.62***

** $p < .01$, *** $p < .001$.

과 부모역할투자, 만족감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양육행동의 귀인을 어머니의 능력, 과제 난이도, 어머니의 노력과 기분으로 많이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양육행동에 대한 귀인과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 인식의 관계가 위 <표 2>, <표 3>과 같이 양육수행을 성공적으로 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에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양육수행 성공 여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Fisher의 z 값으로 변환시켜서 상관계수의 차이를 z 검정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다른 역할들과의 역할균형감과 양육행동에 대한 귀인의 하위 변인들 간의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노력을 제외한 모든 양육행동에 대한 귀인의 하위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z = 3.89 \sim 4.29$, $p < .001$). 또한 부모역할에 대한 유능감과 부모 역할에 대한 투자는 모든 양육행동에 대한 귀인 하위 변인 간에 유의미한 상관계수 차이가 있었다($z = -6.15 \sim 1.95$, $p < .05$). 한편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은 어머니의 능력으로 귀인 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z = -7.67 \sim -2.76$, $p < .01$). 즉, 다른 역할과의 역할 균형을 느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양육수행을 성공했을 때, 어머니의 능력, 과제난이도, 아동행동, 어머니의 노력과 기분으로 귀인하는 것과 더 높은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부모역할 자기 인식의 하위요인인 유능감이나, 부모역할투자, 만족감의 경우 양육수행을 실패했을 때, 어머니의 능력, 과제난이도, 아동행동, 어머니의 노력과 기분으로 귀인하는 것과 더 높은 관련이 있었다.

3. 양육수행 성공 여부에 따른 양육행동 귀인이 부모역할 자기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연구문제 3인 양육수행을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 양육행동에 대한 귀인이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1.59~4.12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Fisher & Mason, 1981).

중다회귀분석의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다른 역할과의 역할균형감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에 대한 귀인의 하위 변인은 양육수행을 성공한 경우 어머니의 노력으로 귀인하는 것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21, p < .05$), 전체 설명력은 19%이었다($F = 2.88, df = 10, 128, p < .01$). 부모역할에 대한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양육행동에 대한 귀인의 하위변인 중 양육수행을 실패한 경우 어머니의 능력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beta = .34, p < .05$), 그 다음으로는 어머니의 노력으로 귀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1, p < .05$). 이 모델은 부모역할에 대한 유능감을 24% 설명하였다($F = .542, df = 10, 128, p < .001$). 부모역할 투자에 미치는 변인은 양육행동에 대한 귀인의 하위변인 중 양육수행을 실패한 경우 아동의 행동으로 귀인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30, p < .05$), 전체 설명력은 25%였다($F = 5.55, df = 10, 128, p < .001$). 부모 역할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양육행동에 대한 귀인의 하위변인 중 양육수행을 실패한 경우, 과제 난이도로 귀인 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3, p < .05$). 그 다음 어머니의 노력으로 귀인 하는 것이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32, p < .05$), 그 다음 어머니의 기분으로 귀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5, p < .05$). 이 모델은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을 30% 설명하였다($F = 6.83, df = 10, 128, p < .001$). 즉, 양육수행에 성공했을 때, 어머니의 노력으로 귀인 할수록 다른 역할과의 균형감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양육수행에 실패했을 때, 어머니의 능력으로, 아동의 행동으로 귀인 할수록 양육행동에 유능감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양육수행에 성공했을 때, 과제 난이도로 귀인하지 않을수록, 양육수행에 실패했을 때, 아동의 행동으로, 어머니의 기분으로 귀인 할수록 부모역할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양육수행에 실패했을 때 과제 난이도와 어머니의 기분으로 귀인 할수록, 어머니의 노력으로 귀인하지 않을수록 부모역할에 만족감을 인식하고 있었다.

<표 4> 양육수행 성공 여부에 따른 양육행동 귀인과 부모역할 자기인식 간 관계의 차이 (N=138)

	1	2	3	4	5	6	7	8
1. 어머니능력								
2. 과제난이도	-1.80*							
3. 아동행동	-2.31*	-1.02*						
4. 어머니노력	-3.88***	-5.47***	-6.45***					
5. 어머니 기분	-2.60*	-2.50*	-3.51***	-2.65***				
6. 역할균형감	4.29***	4.08***	4.20***	1.17	3.89***			
7. 유능감	-6.15***	-4.56***	-3.52***	-3.22**	-3.38***	.00		
8. 부모역할투자	-4.34***	-6.70***	-5.82***	-1.95*	-2.87**	.00	.00	
9. 만족감	-1.60	-7.67***	-6.39***	-2.76**	-5.84***	.00	.00	.00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양육수행 성공 여부에 따른 양육행동 귀인이 부모역할 자기인식에 미치는 영향 (N = 138)

		역할균형감			유능감			부모역할투자			만족감		
		β	SE	t	β	SE	t	β	SE	t	β	SE	t
양육수행 성공	어머니능력	-.07	.12	-.59	-.08	.11	-.70	.17	.11	1.46	.01	.11	.08
	과제난이도	.05	.13	.39	.13	.12	1.11	-.27*	.12	-2.24	-.05	.12	-.40
	아동행동	.13	.12	1.15	.07	.11	.62	-.04	.11	-.34	-.04	.10	-.40
양육수행 실패	어머니노력	.21*	.10	2.10	-.03	.09	-.37	.12	.09	1.30	.07	.09	.78
	어머니기분	.06	.10	.58	-.01	.10	-.08	-.06	.10	-.57	-.12	.09	-1.33
양육수행 실패	어머니능력	-.17	.15	-1.12	.34*	.14	2.41	-.02	.14	-.16	.00	.14	-.01
	과제난이도	-.04	.14	-.27	-.09	.13	-.67	.15	.13	1.16	.33*	.13	2.62
	아동행동	-.07	.16	-.42	.27*	.15	1.78	.30*	.15	2.01	.27	.15	1.87
양육수행 실패	어머니노력	.18	.15	1.16	-.01	.14	-.05	-.26	.14	-1.85	-.32*	.14	-2.34
	어머니기분	-.14	.13	-1.08	.11	.12	.93	.25*	.12	2.11	.25*	.11	2.20
R		.43			.55			.55			.59		
R ²		.19			.24			.25			.30		
F(df)		2.88**(10, 127)			5.42***(10, 127)			5.55***(10, 127)			6.83(10, 127)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귀인이 양육수행 성공과 실패라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양육수행을 성공한 상황과 실패한 상황으로 구분하여 각 상황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귀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양육행동 귀인이 어머니의 스스로의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인식과 상관을 가지는지, 그 상관이 양육수행 성공과 양육수행 실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양육행동 귀인이 부모역할 자기인식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양육수행 성공과 양육수행 실패에서 각각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수행에서의 성공과 실패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귀인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양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행동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 과제 난이도, 아동의 행동, 어머니 노력, 어머니 기분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양육수행에서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그 원인을 자신이 노력했기 때문에, 능력있기 때문에, 과제가 쉬워서, 또는 아동이 잘 따라주어서, 자신의 기분이 좋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더 많이 한 것이다. 이는 양육수행을 성공적으로 했을 때와 양육수행을 실패했을 때 모두 어머니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원인을 두어 내적귀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송은(2011)의 연구결과, 그리고 양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는 어머니의 능력

과 노력 등 내적 귀인을 더 많이 하였고, 양육수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 간의 점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박수연(2005)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이송은(2011)의 연구에서는 성공상황과 실패상황의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성공상황과 실패상황의 차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성공상황 내에서 다양한 귀인성향의 차이와 실패상황 내에서 다양한 귀인성향의 차이를 각각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박수연(2005)의 연구에서도 양육수행 성공과 실패로 구분하기는 했으나 성공여부에 따라 귀인이 다르게 이루어지는지를 측정하지 않고, 성공한 상황에서의 내적귀인과 외적귀인의 차이, 실패한 상황에서의 내적귀인과 외적귀인의 차이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양육수행 성공여부에 따른 귀인의 차이를 밝힌 본 연구와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선행연구들은 성공상황과 실패상황의 비교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성공한 경우 내적귀인과 외적귀인의 차이, 실패한 경우 내적귀인과 외적귀인의 차이를 살펴보는 데 국한되었기에 성공상황과 실패상황의 비교에 중점을 두고 살펴본 본 연구결과와는 그 결과의 해석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각 귀인 요소별로 성공상황과 실패상황의 차이를 밝히는데 중점을 둔 결과, 내적요인 외적요인을 막론하고 어떤 요인이든 귀인하는 성향은 실패상황보다 성공상황에서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귀인의 근본적인 성격을 말해주는 결과로, 귀인이 어떤 결과의 원인을 추론하고 해석하는 행동임을 고려할 때, 양육수행에 성공했을 때 어떤 원인으로든 그것을 추론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은 자신의 성공적인 양육수행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양육에 실패한 경우 어떤 원인으로든 그것을 추론하는 경향이 적다는 것은 자신의 양육수행 실패에 대해 많이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수행 실패 시 이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적 사고의 결여는 실패의 원인을 찾고 극복하며 더 발전적인 양육행동을 찾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둘째, 양육수행 성공과 실패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 귀인과 부모역할 자기인식의 상관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 양육수행 성공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귀인이 부모역할 자기인식의 하위요인 중 다른 역할과의 균형감과 정적 상관을, 유능감, 부모역할투자, 만족감과 부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양육수행 실패에서는 반대로 양육행동 귀인이 다른 역할과의 균형감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유능감, 부모역할투자, 만족감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낸 것이다. 양육수행 성공과 실패에 따른 이러한 상관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수행이 성공했다고 인지한 경우, 어머니는 자신의 양육의 원인을 능력, 과제난이도, 아동행동, 노력, 기분 등 다양한 요인으로 귀인 할수록 다른 역할과의 균형감을 더 높게 가지지만, 유능감, 부모역할투자, 만족감은 더 낮게 가지는 것이다. 반대로 양육수행이 실패했다고 인지한 경우, 어머니는 자신의 양육의 원인을 능력, 과제난이도, 아동행동, 노력, 기분 등 다양한 요인으로 귀인 할수록 다른 역할과의 균형감은 낮아지며 유능감, 부모역할투자, 만족감은 더 높게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관관계의 차이는 예기치 않은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귀인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한 송경애(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양육수행 성공여부에 따른 이러한 상관의 차이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양육수행

에 실패했다는 인식을 전제로 실패의 원인에 대해 추론하고자 하는 성향은 그 귀인의 방향이 능력이든 노력이든 또는 그 외 다른 요인이든 요인의 성격에 관계없이 부모역할 자기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실패의 원인에 대해 추론을 시도한 그 자체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부모역할을 향한 노력이며 이러한 자신의 노력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부모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양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무엇으로 추론하든, 귀인하는 성향자체가 부모역할 자기인식과 부적인 상관을 가졌는데 이는 실패상황과 달리 성공했음에도 그 원인을 추론하고자 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높거나 또는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한 성취동기가 높아 현재의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내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Weiner(1985)의 귀인이론이 제시한바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Weiner는 성공을 안정적 원인인 능력에 귀인하는 것은 적응적 결과를 가져오지만 노력으로 귀인하는 것은 낮은 성취동기라는 부적응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고, 반대로 실패는 안정적 원인인 능력에 귀인하는 것이 과제를 포기하게 하는 부적응적인 결과를 불러오고, 불안정한 원인인 노력에 귀인하는 경우, 적응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하여 같은 원인으로의 귀인이 성공 상황과 실패 상황에서 다른 결과를 불러온다고 예측한 바 있다. 다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안정 또는 불안정, 내적 또는 외적 등 원인의 종류와 관계없이 성공 상황에서 귀인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부모역할 자기인식이 많고, 실패 상황에서 귀인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부모역할 자기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역할 자기인식이라는 인지적 과정에는 Weiner의 이론이 부분적으로만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적인 반영은 Weiner의 귀인이론이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설명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에 대한 성취동기 이전의 인지적 단계인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시사점은 이러한 결과가 다른 역할과의 균형감에 대해서는 반대방향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부모역할 자기인식 중 다른 역할과의 균형감이 유능감, 부모역할투자, 만족감과 다른 특성을 가졌을 가능성을 암시했다는 것이다. 유능감과 부모역할투자, 만족감 등이 양육행동과 직접 관련된 측면인 반면 다른 역할과의 균형감은 어머니 자신의 정체감이나 자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양육수행 성공에서의 양육행동 귀인과 부모역할 자기인식의 상관의 크기보다 양육수행 실패에서의 양육행동 귀인과 부모역할 자기인식의 상관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난 점도 양육수행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드러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연구문제 1의 결과에서 나타난, 성공 상황에서의 양육행동 귀인이 실패 상황에서의 귀인성향보다 높게 나타난 점과 함께 고려해서 해석한다면, 걸음마기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양육을 성공했다고 인지할 경우 실패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 비해 양육수행 성공의 원인을 찾는 인지적 활동을 더 많이 하지만, 실제로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인식에 더 큰 상관을 갖는 것은 성공에 대한 귀인보다는 실패에 대한 귀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양육수행 실패 상황에서는 내적요인인 어머니의 노력과 기분으로 귀

인 할수록 유능감, 부모역할투자, 만족감 등 부모역할 자기인식이 높아진데 반해, 반대로 성공 상황에서는 내적요인인 어머니의 노력과 기분으로의 귀인은 유능감, 부모역할투자, 만족감 등 부모역할 자기인식과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아, 어머니 자신의 내적요인으로 귀인하는 것은 부모역할 자기인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요인이 변화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요인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양육수행 성공 시에는 이미 성공한 상황에서 별다른 추가적인 발전을 도모할 가능성이 없는 반면, 양육수행 실패 시에는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해 자신의 내적요인으로 귀인 할수록 내적 변화를 꾀해 양육수행의 개선을 도모할 여지가 있기에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부모역할 자기인식에 미치는 어머니 양육행동에 대한 귀인의 영향은 부모역할 자기인식의 하위영역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양육수행 성공의 귀인이 유의한 영향을 보인 것은 역할균형감과 부모역할 투자인데, 어머니의 노력으로의 귀인이 높을수록 역할균형감이 높았고, 과제 난이도로의 귀인을 적게 할수록 부모역할 투자에 대한 자기인식이 높았다. 반면 양육수행 실패의 귀인이 유의한 영향을 보인 것은 유능감, 부모역할투자, 만족감으로 어머니의 능력과 아동행동으로의 귀인이 높을수록 유능감이 높았으며 아동행동과 어머니 기분으로 귀인 할수록 부모역할 투자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과제난이도와 기분으로 귀인할수록 그리고 노력으로 귀인하지 않을수록 만족감이 높았다. 전체적으로는 능력, 노력, 기분 등 양육행동 귀인의 내적 요인과 아동행동, 과제난이도 등의 외적요인이 고르게 부모역할 자기인식의 하위요인들을 고르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양육에 있어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부모역할에 만족감을 느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Bornstein et al., 1996)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Bornstein et al., 1996)가 발견한 어머니의 능력으로의 귀인과 만족감의 단순한 상관관계를 넘어, 그러한 상관이 양육수행 실패에서 유의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도 양육수행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여 양육행동 귀인과 부모역할 자기인식의 관계에 접근해야함을 알려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다른 역할과의 역할균형감에 대해서는 양육수행 성공의 양육행동 귀인이 유의한 영향을 보인 반면, 유능감과 만족감에 대해서는 양육수행 실패의 양육행동귀인만이 유의한 영향을 보인 점 또한 특기할만한 차이이다. 부모역할 투자에서도 정적영향을 보인 양육행동 귀인은 양육수행 실패에서였고, 양육수행 성공의 양육행동귀인은 부적영향을 보여 다른 역할과의 역할균형감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유능감, 만족감, 부모역할 투자와 같은 양육행동에 직접 관련된 부모역할 자기인식은 양육수행 상황에서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만, 다른 역할과의 균형감이라는 어머니 자신의 자아와 관련된 부모역할 자기인식은 양육수행 성공의 양육행동 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는 어머니가 스스로의 부모역할에 대해 인식할 때 이를 좌우하는 인지적 요소는 양육수행에 실패한 경우 어떤 원인으로 자신의 양육수행 실패를 설명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로, 어머니가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하도록 격려하여 긍정적 양육을 고무시키고자하는 부모교육현장에서 참고할만한 결과이다. 어머니가 스스로 양육수행에 실패했다고 여길 때 안정적 요인인 어머니의 능력과 아동행동으로 귀인하고, 불안정적 요인인 과제난이도와 노력과 기분으로 귀인 할 때 유능감과 만족감이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는 성공을 안정적 원인인 능력에 귀인하고, 실패를 불안정한 원인인 노력에 귀인하는 경우, 더 노력하고 연습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실패 했더라도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의 과제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성취기대가 높다고 본 Weiner의 귀인이론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모델의 설명력이 부모역할 자기인식의 4개의 하위요인 각각에 대해 다르게 나타났는데, 만족감 모델에서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른 역할과의 균형감에 대한 양육행동 귀인의 영향 모델의 설명력이 19%인데 비해 만족감에 대한 모델은 30%로 나타나 양육행동을 어떠한 원인으로 귀인 시키는 가는 부모역할 자기인식 중 아동양육에 직접 관계된 만족감, 유능감, 부모역할투자 등의 인식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설명하지만 부모 자신의 다양한 역할 중 부모역할과 다른 역할과의 균형감에 대해서는 다소 설명력이 약하게 나타나 다른 역할과의 균형감이 양육수행에 대한 인지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어머니 자신의 자아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은 양육귀인 행동의 전제가 되는 양육수행 성공과 실패 여부에 대한 의미와 측정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의 성공과 실패여부를 어머니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귀인이라는 주관적인 인지적 요소의 배경이 되는 성공과 실패 여부 역시 어머니 개인의 판단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양육수행이라는 상황은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어머니 자신의 목표와 만족에 따라 성공과 실패로 판단할 수 있는 주관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나아가 아이를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달래는 것에 대한 성공의 기준이 결과론적으로만 판단된다면 양육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호작용의 요소가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또한 고려되었다. 영아가 떼를 써서 목욕을 모두 시키기 힘든 상황에서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목욕을 모두 마치는 것을 성공으로 보기 보다는 목욕을 모두 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씻기더라도 그 과정에서 공감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면 어머니는 성공했다고 여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수행의 결과는 비록 어설피고 서툴더라도 그 과정에서 공감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면 자녀의 정서발달에는 보다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어머니 자신의 판단으로 성공과 실패여부를 가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양육수행의 성공과 실패를 과업중심적 해석해야하는지, 본 연구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주관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해석해야하는지는 향후 연구에서도 그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행동 귀인 중 양육수행 실패상황과는 달리 양육수행 성공상황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능력, 과제난이도, 아동의 행동의 신뢰도계수가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수행 실패상황과 달리 성공상황에서의 귀인에 대한 측정에 있어 국내 상황에서 나타나는 변수가 있음을 암시하며 이 척도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내문화가 반영된 수정보완의 시도가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경제적 수준을 어머니가 지각한 수준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경제적 수준을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현실로 인한 연구의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부모역할 자기평가를 측정하고 있으며 이는 어머니의 학력 및 경제적 배경과 관련성이 높은 변인으로

추정되어,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경제적 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설문지 연구의 한계로 양육수행의 성공과 실패 상황을 어머니의 주관적 판단으로 측정하여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으며, 주관적 판단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 양육수행 과정에서의 공감적 상호작용을 구체적인 문항으로 표현하여 측정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양육행동 귀인의 부모역할 자기인식에 대한 예측력을 입증하였다. 특히 국내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다른 역할과의 균형감을 부모역할 자기인식에 포함시켜 어머니 자신의 자아에 해당하는 부분도 부모역할 자기인식에서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밝혔으며, 내적귀인과 외적귀인이 모두 부모역할 자기인식을 예측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나아가 양육행동 귀인과 부모역할 자기인식 간의 관계가 양육수행 성공상황과 실패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밝혔는데 의의가 있다. 어머니의 긍정적인 부모역할 자기인식을 격려하고자 하는 부모교육 및 상담현장에서 본 연구결과를 인지적 전략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도현심, 김지신 (1997). 사회적지지 및 부모역할만족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5(6), 127-135.
- 문혁준 (2001).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05-219.
- 박성연, 서소정, Bornstein (2005). 어머니-영아간의 상호작용방식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 아동학회지**, 26(5), 15-30
- 박수연 (2005). 영아의 성 및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수행에 대한 귀인,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및 양육지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경애 (2009). 양육환경과 귀인성향에 대한 고찰. **한국여성교양학회지**, 18, 3-20.
-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대식 (1992).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각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송은 (201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수행귀인 및 부모역할 인식과 그에 따른 양육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형성, 정옥분 (2000).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6.
- Azar, S. T., Siegel, B. R., & Cote, L. R. (1993, March).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s attributions for academic success failur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1, pp. 169-208). NY:

- Russell Sage Foundation.
- Bondy, E. M. & Mash, E. J. (1999). Parenting efficacy, perceived control over caregiving failure. And mothers' reactions to preschool children's misbehavior. *Child Study Journal*, 29(3), 157-173.
- Bornstein, M. H., & Cote, L. R. (2003). Cultural and parenting cognitions in acculturating cultur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4(3), 350-373.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O. M., Painter, K., Galperin, C., et al., (1996). Ideas about parenting Argentina, France, and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 DeWolff, M. S., & van IJzendoor, M. H. (1997). Sensitivity and attachment: A meta-analysis an parental antecedents of 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8(4), 571-591.
- Dunn, J. (1993). *Young children's close relationships*. Newbury Park, CA: Sage.
- Erickson, E. (1950). *Childhood and Society*. NY: Norton.
- Fisher, J. C., & Mason, R. L. (1981). The analysis of multicollinear data in criminology. In J. A. Fox (Ed.), *Methods in quantitative criminology* (pp. 99-125). NY: Academic Press.
- Guidubaldi, J. & Cleminshaw, H. K. (1994). *Parenting satisfaction scale: Manual*. San Antonio, TX: Psychological Corporation.
- Himelstein, S., Graham, S., & Weiner, B. (1991).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Maternal Beliefs about the Importance of Child-rearing Practices. *Child Development*, 62(2), 301-301.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8(2), 167-175.
- Lenhard, W. & Lenhard, A. (2014). Hypothesis Tests for Comparing Correlations. available: Retrieved April 3, 2016 from <http://www.psychometrica.de/correlation>.
- Leung, J. T. Y., & Sheck, D. T. L. (2015). Parental attributions of children's success and failure and family processes in poor Chinese families. *Journal child family study*, 24(8), 2191-2203.
- MacPhee, D., Benson, J. B., & Bullock, D. (1986, April). *Influences on maternal self-perceptions*. Paper presented at the Fifth Bienni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ant Studies, Los Angeles.
- MacPhee, D., Seybold, J., & Fritz, J. (n.d.). *Parental attributions and self-esteem among mothers of delayed children*. Unpublished manuscript.
- Mondell, S., & Tyler, F.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1), 73-78.
- Rotter, J. B. (1990). *Social learning and clinic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cheel, M. J., & Rieckman, T. (1998). An empirically derived description of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for parents of children identified as psychologically disorderd. *The American Journal of Ffamily Therapy*, 26(1), 15-27.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3). Childhood Experience, Conceptions of Parenting, and Attitudes of Spouse as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 and Family*, 55(1), 91-106.
- Steinberg, L., Elmen, J., & Mount, N. (1989). Authoritative parenting, Psychological maturity, and academic success among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0(6), 1424-1436.
-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 of infant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5), 918-929.
- Weiner, B. (1979). A theory of motivation for some classroom experienc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1), 3-25.
- Weiner, B. (1985). An attributional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92(4), 548-573.

논문투고 : 16.04.15
수정원고접수 : 16.05.30
최종게재결정 : 16.06.02